뉴스핌 기사 프린트

김연철 "北 개별관광·DMZ 국제평화지대화 실현 가능...남·북 모두에 도움"

통일부 창설 51주년 장관 기념사
"변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가능"

-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4:41
-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7:55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 지역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철도 연결은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창설 51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남과 북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더 공고한 평화, 더 큰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그는 다만 "물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며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올해가 분단 75주년이자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임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불완전한 평화가 아닌 확고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로 나아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진전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변함없는 필요조건"이라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됐다. 1998년 '통일부'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noh@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기사입력 2020.03.02 11:06 최종수정 2020.03.02 11:06

北 ·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의 대북 방역물품 지원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일부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서 통일부에 협조 요청이 들어왔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부 단체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대북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단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 방역협력에 관한 양측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 대변인은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 요청이나 또 남북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국제기구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 관련 방역 물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주말 10개월여만에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당 서열 1순위 부서인 조직지도부 수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해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말을 아꼈다.

여 대변인은 "간부들의 부패척결이나 이번 전염병(코로나19) 차단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번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해임과 관련해 통일부가 특별히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통상적으로 당 전문부서 부장들의 구체적인 임명·해임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해임이 발표된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당 중앙위원회와 부위원장 현직에서 해임한다고 되어있고, 당 전문부·관련시기는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